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9 권 4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성당사무실 시간: 화요일 ~ 금요일(9:30AM ~ 6:00PM)
한인 공동체 이메일: sanclemente.kc@gmail.com

| | | | | |
|---------|---------|----------|----------|---------|
| 미 사 성 가 | 입당 (93) | 봉헌 (212) | 성체 (165) | 파견 (91) |
|---------|---------|----------|----------|---------|

미사 전례 예절

- 흔히 미사를 “보러간다”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심하고 감사하는 마음과 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귀와 혀와 입과 감정과 마음을 합하여 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미사참례"라고 해야 합니다.
- 성당에 항상 늦게 와서 뒤에 앉아 있다가 미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일어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이 아니고 손님 같은 신자입니다. 매일은 못하더라도 주일만은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 여유를 가집시다.
- 미사참례 복장은 단정한 옷차림, 되도록 정장을 하도록 합시다. 소매 없는 옷이나 지나치게 짧은 미니스커트, 속이 많이 드러나는 옷, 츄리닝, 기타 운동복, 슬리퍼 착용은 합당한 전례 복장이 아닙니다.
- 성당마당에 들어서 성모님께 인사를 합니다. 이때 성모님께 성호를 그어 인사함은 바람직한 행동이나 굿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참고: 새 미사예절 지침서 등에서-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 날짜 | 미사해설 | 독서 | 복사 |
|-------|--------|-------|--------|
| 12/9 | 유 요한 | 이 바오로 | 황 스테파노 |
| 12/16 | 이 마틸다 | 이 요한 | 황 스테파노 |
| 12/23 | 이 그레이스 | 이 바오로 | 황 스테파노 |
| 12/30 | 이 마틸다 | 이 요한 | 황 스테파노 |

영어독서: 황 스텔라, 손 데레사

우리의 정성

| 지난 주일 | 봉헌금 | 2차 봉헌 | 교무금 |
|-------|-----|-------|-----|
| | \$ | \$ | \$ |

성당 청소 봉사자 일정

청소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 요한 총무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12/1 | 손 아놀드/ 손 쟈마 | 1/5 | 이 그레이스/ 김 마르타 |
| 12/8 | 이 글라라/ 장 글라라 | 1/12 | 홍 마르코/ 홍 아녜스 |
| 12/15 | 박 벨라데타/ 정 루시아 | 1/19 | 김 요아킴/ 고 안나 |
| 12/22 | 이 요한/ 이 마틸다 | 1/26 | 김유스티노/ 김유스티나 |
| 12/29 | 유 요한/ 유 마리아 | 2/2 | 이 바오로/ 이 빅토리아 |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한 기도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이삭

사랑의 비스코리

-천향길 베네딕다 수녀 | 성바오로딸수녀회-

내일 밤이면 아기 예수님이 오십니다. 마중 나갈 채비는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바쁘고 분주하게 지냈습니다. 한 해 중 대림 시기가 가장 바쁜 것 같습니다. 인터넷 서점 사도직 특성상 삶에서 오는 피곤함을 기꺼이 봉헌하고 저의 부족함을 보속의 정신과 기도로 채우며 기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성탄 축제를 준비하는 마음은 누구나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넷 서점이 시작된 지 벌써 스무 해가 지났습니다. 이를 먼저 기억하고 챙겨주신 분은 원장 수녀님과 주방 수녀님이셨습니다. 주방 수녀님이 처음 인터넷 서점을 시작한 장본인이시거든요.

올해 성탄 이벤트는 이태리 쿠키인 '비스코티(biscotti)'입니다. 선교사로 러시아와 이탈리아에서 살았던 원장 수녀님이 어느 해 처음 만들어 주셨는데 바삭바삭한 식감이 참 좋았습니다. 비스코티는 다른 쿠키와 달리 오븐에 두 번 굽습니다.

원장 수녀님은 인터넷 서점 회원을 위해서도 꼭 한 번 쿠키를 만들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 역시 주방 소임을 해봤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본원의 바쁜 살림과 대식구를 위해 매 끼니를 준비하는 것도 어려운데 덩으로 쿠키를 굽다니요.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기꺼이 반죽을 준비해 주신 수녀님과 함께 쿠키를 구워주신 수녀님들 또 예쁘게 포장해 주신 수녀님도 고맙습니다.

저는 아기 예수님께 드릴 구유 예물로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일치를 이루며 기쁘게 살 수 있었던 것과 피곤을 봉헌하며 이웃에게 기쁨을 줄 수 있었던 것을... 때로는 공동체 생활 자체가 힘겹고 십자가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함께 하기에 힘든 일도 쉽게 넘을 수 있고 웃을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마음자리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

공동체 소식

성체조배: 매달 첫째 목요일 오후 6시 30분

성체조배를 통하여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인공동체 임원회의: 매달 두번째 월요일 오후 7시

임원 분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기도성가 모임: 매주 목요일 오후 7:30

성가와 말씀 나눔, 기도로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을 많은 형제, 자매님과 함께 하기를 희망 합니다.

장소: 6451 Aker Rd. #7, Bakersfield. CA 93313

성경공부: 주일미사 후 친교실에서 (셋째 주 제외)

매주 미사 후 코린토서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형제 자매님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봉사자를 위한 저녁식사 안내 12/23(일)

오늘 오후 5:00시 봉사자를 위한 식사가 있습니다.

성탄 전야 미사 및 구유예절 12월 24일

내일 5:30pm 구유예절, 6:00pm 저녁미사

성탄 대축일 낮 미사 12월 25일

9:30am 한/영 미사

리라 믿습니다.

성탄의 가장 큰 신비는 하느님이 사람이 되시어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손으로 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송은 이렇게 초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희가 깨어 기도하고 기쁘게 찬미의 노래를 부르면서 성탄 축제를 준비하고 기다리게 하셨다" 고요. 큰 빛이 오십니다. 주님은 어두운 세상에 하늘을 열고 오십니다. 그분은 선물처럼 우리 기다림을 채워주셨습니다. 안드레아 슈바르츠는 「성탄이 왔다!」에서 신비이신 하느님께 시간과 공간을 내어드리자고 초대합니다. 이 신비를 내 삶 속으로 모셔올 때 비로소 성탄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서울주보에서-

교리상식 성탄 장식 3종 세트에 대해 알고 싶어요.

예부터 교회는 성탄을 맞기 위해 세 가지 의미 있는 장식을 합니다. 첫째 대림환, 흔히 사철나무 가지를 둥글게 말아 그 위에 초 네 개를 올려놓습니다. 둥근 대림환은 시작도 끝도 없는 하느님의 사랑을, 푸른 잎과 촛불은 한겨울을 건디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초는 진한 보라색으로부터 흰색으로 커나가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옴을 알려줍니다. 둘째는 크리스마스 트리, 상록수를 쓰는 것은 늘 푸른 나무가 건장한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구유 또는 마구간, 성탄 시기 동안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주로 성당 안이나 마당에 설치합니다.

글_ 「교회상식 속풀이」 | 바오로딸 발행